

프랑스 미용 교육 자격증 제도와 우리나라와의 비교 고찰

신 명 자*

대전보건대 피부미용과 교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과거 제조업 위주이던 것이 점차 다원화되며 서비스업 증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서비스업 중심적인 경제 및 산업구조 개편 의지에 따라 서비스업에 속하는 미용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미용업은 공중위생 분야의 한 분야로서 국민의 건강 유지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거 미용업, 숙박업, 그리고 목욕장업이 통합 관리되고 있다.

이 중 미용업은 국제적으로도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성장을 위한 국가적인 육성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업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미용 관련 자격증 제도의 확립이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 한다. 각종 자격 제도와 그에 따른 자격증은 개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격’은 ‘학력’과 함께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여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신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능력중심사회·평생학습사회에서 ‘자격’은 기존의 ‘학력’을 보완하는 노동시장의 신호기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미용 자격제도는 그 의의만큼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미용 자격증의 분야별 분리 문제는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미용 분야별 시각의 차이와 각 협회나 단체의 독실 계산에 따른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미용 관련 자격증 현황을 고찰한다.

둘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랑스와 우리의 미용 교육 시스템을 비교 고찰한다.

셋째, 우리나라 미용 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점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그 방법으로 국내외 문헌 및 논문 연구와 함께 미용 산업체 종사자 137명과 미용대 재학생 134명에 대한 설문 조사 연구를 병행 하였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 설립된 미용 전문 95개 대학의 97개 학과의 교육 과정을 고찰 하였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미용 자격 제도에 대하여는 주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 고찰 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자격 제도와 미용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점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피부, 메이크업, 헤어, 보건 분야 각 전공 교수의 전문적 의견을 참조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미용업이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에게 부족하며, 제도와 법률을 선도해야 할 미용대학이 1991년 이후에야 처음 신설되어 교육과정이나 자격 체제가 전문화 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 짧은 기간에 학생 모집과 취업이 용이한 인기학과라는 점 때문에, 충분한 검토나 준비 과정 없이 과다하게 생겨난 100여 개교에 달하는 전문대와 20여개교의 4년제 미용

* Corresponding author: serena@hit.ac.kr

관련 대학과 미용 대학원 과정의 전문화도 문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질적 수준은 낮고, 양적으로는 과다 배출된 미용 전문 인력 문제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사회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예측되었다.

프랑스의 경우는 미용 실무를 하는 전문인의 수를 예측하여, 국가 관리 하에 전문대의 수준에서 피부, 헤어, 메이크업 분야별로 분리된 학교에서 교육한 후 적정 수준과 숫자의 전문 인력을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하고 있다. 또, 향장 회사 관리자나 미용 부문의 전문 교육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 교육 과정을 통과한 후 별도 여건의 자격시험을 통해 소수의 미용 전문 엘리트만을 배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용 인력의 질적 수준이 분야별로 문제가 되며 과다한 숫자가 배출되었다. 국가적으로 미용사 자격만으로 피부, 헤어, 메이크업의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 또, 미용고나 미용대학 졸업 시에는 미용사 면허가 졸업과 동시 부여된다. 그래서, 전문 분야별 자격 수준의 검증 없이 통합적인 미용 업무를 하는데서 건강 위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미용과가 최근 인기 학과로 부상되며 미용 실무에 필요한 필수 전공 교과를 다수 이수하지 않은 학사, 석, 박사 이상 미용 전공자가 대거 배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용 전공 학생과 인력이 국내에서는 이미 초과된 현실에서 향후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미용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는 높아질 전망이 있다. 또, 중국·월남 등 주변 아시아국의 우리 미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국제적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태이므로 좀 더 바람직한 개선이 시급히 요망된다.

조사 연구 결과로 현재 실무에 종사하는 미용 전문인, 전문 교수, 미용대 재학생 중 절대다수가 제도의 개선을 요하고 있으므로 미용업의 육성에 좀 더 일찍 관심을 기울여 선진화한 국가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 분야별 분리 자격증의 확립과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각종 관련 단체별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미용사 자격 제도와 교육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관여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미용 자격시험과 교육 내용, 제도를 고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미용의 질을 높이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증가 전망이 있는 미용 전문 인력의 배출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피부, 헤어, 메이크업 등 미용 각 분야별, 세분화, 전문화, 고급화를 실현 가능케 하는 자격제도와 상위 자격제도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